

‘예술의 거리’로 떠나는 특별한 미술 나들이

‘2022 VIVA! 예술로’ 국제비디오아트전 ‘송고한 열정들’展

최재영 작가 초청 ‘Glam Boys’...다양한 NFT 콜렉션 선봬



최재영 작가

2022년 엔데믹 시대, 회복과 치유를 기원하며 광주 예술의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다양한 전시들이 마련됐다.

아시아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2022 VIVA! 예술로’는 오는 4일까지 비바아트 스페이스(동구 예술길 19-2, 지하 1층)에서 국제비디오아트전 ‘송고한 열정들’을 개최한다.

국내의 세계적인 퍼포먼스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국제비디오아트전이다.

다양한 대륙의 신체를 기반으로 하는 4대륙 7개국 퍼포먼스 아티스트들이 코로나 위기 속 ‘관계와 공존, 나눔’을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프레드릭 크라우케(독일), 안토니 카르밈스키(폴란드), 안드레아 아귀아(콜롬비아), 마부부 라벤(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국적의 세계적인 퍼포먼스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NFT-메타버스 전시도 마련됐다. NFT 디지털아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작품에 고유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원작의 고유성과 저작권을 보호해주고, 예술계의 가치를 디지털화해 미술 고유 가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정받고 있는 작품 형태다.

현재 ‘VIVA! 예술로’에서 전시되는 NFT 작품은 최재영 작가의 작품들이다.

최 작가는 화화작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동시에 NFT-메타버스 작품까지 영역을 확장한 스펙트럼이 넓은 작가다. 조선태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2000년 영국 런던예술대학(윌블던아트 칼리지)에서 인아트(MA)를 졸업한 작가는 한국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26회의 개인전과 500여회의 단체전 및 국제 아트 페어에 참여하면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인간에 대한 주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최재영 작가는 이번 전시 ‘Glam Boys’에서도 현대 사회의 화두인 인간성 상실 문제를 회화의 주제로 삼았다.

전시 속 작품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다. 순수성을 잃은 현대의 어른들이 ‘Glam Boys’처럼 다시 빛나고 순수해지길 갈망하는 작가의 세계관이 디지털 작품으로 옮겨졌다.



최재영 작 'Glam Boys'

푸르른 자연을 배경으로 아이의 천진한 미소가 조화롭게 구성된 미디어 작품 및 디지털 프린트 작품 30여점과 화려한 배경을 골자로 한 메타버스의 가상세계 갤러리까지 다양한 NFT 콜렉션을 만나볼 수 있다.

최재영 작가는 “자연과 문명의 공존을 암시하는 작품들을 감상하며,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겪은 고난을 해방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Glam Boys’전은 카페 달정원(동구 중앙로 210)에서 오는 5일까지 열린다.

/최명진 기자



‘욕정호’

눈부시게 아름다운 섬진강

노의옹의 캔버스여행



했다. 그 맑고 많은 산줄기 물들이 가장 낮은 틈새를 비집고 낮은 곳으로 흘러 내리는 것은 자연의 이치리라.

80이 되도록 광주를 한 달 이상 떠나본 적이 없다. 4대강을 완주하겠다는 소소한 욕심을 가지고 1차 영산강, 2차 금강을 완주하고 3차로 섬진강 발원지 데미샘을 찾아 배우자와 함께 떠났었다.

잔안 백운산을 지나 후덕하게 펼쳐진 덕태산과 내동산을 바라보며 우리는 섬진강과 한몸이 됐다.

망파우를 지나 선각산을 돌아 봉황산 아래로 한참 내려가니 데미샘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이 작은 샘이 섬진강 발원지라니 신기하기도 했고 이 작은 물이 거대한 강을 이뤄낸 것이라 여기서부터 섬진강 530리가 시작된다.

“하느님 저희 부부를 굽이 살펴시고 섬진강 530리 길을 무사히 마치도록 도와주소시오”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을 자연과 함께 하며 섬기고 경외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소시오”

아름다운 풍광과 남도의 숨결이 고즈넉한 섬진강을 걷기 시작

가도 가도 산에서 내려오는 맑고 깨끗한 물 즐기는 시원을 가능키 어려울 정도로 맑아 없었다.

다른 강들은 셋강 상류를 보면 좁아는 그리도 많은지 섬진강은 급류가 빨라서 물이 깨끗하기도 하지만 댐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다. 또 섬진강 주변은 펜션이 많다. 그리해 자연과 잘 어울려 한쪽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 물을 따라 내려오다 보니 욕정호가 나온다. 물에 떠있는 봉어섬이 장관 중의 장관이다.

내일은 망덕포구를 향해 걷게 된다. “집나간 머느리가 돌아온다”는 제철 전어의 별미는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다. 조만간 망덕에 도착할 생각하니 펜스레 흥분이 고조되는 섬진강을 걷기 시작

된다. <섬진강변에서 화가 노의옹>

씻은 듯 비가 개고, 다시 산은 푸르러

‘취우, 소나기’展...31일까지 아산조방원미술관

아산의 자유로운 발문과 필선의 조화로 남도의 여름날을 즐길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아산조방원미술관은 오는 31일까지 기획전 ‘취우(驟雨), 소나기’전을 개최한다.

물아치는 거친 빗방울과 우레 소리, 언제 그랬냐는 듯 쾌청하게 개인 하늘, 검은 구름을 몰고 달려온 소나기는 잠시 당혹스럽지만 그것이 지나간 자리는 우리에게 더욱 푸르른 산을 내어 준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산 조방원 화백의 하경 산수를 중심으로 아산의 사계절 8폭병풍과 그가 수집한 조선 후기 변지순의 산수 8폭병풍, 20세기 초 작가 미상의 여름 풍경을 담은 4폭병풍 등 총 19점의 작품들을 선보인다.

아산 조방원 화백 특유의 발묵과 필



아산 조방원작 '묵우'

흔이 조화를 이룬 작품들을 통해 여름날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만나볼 수 있다.

아산조방원미술관 관계자는 “조방원 화백의 자유분방한 발묵이 돋보이는 하경산수를 통해 여름날의 청초함과 남도 문인화의 우아함, 담백한 미를 감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화폭에 담은 강렬한 생명의 역동성

‘생명의 순환’展...오는 26일까지 국유미술관

녹음이 짙어지는 무더운 계절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국유미술관은 오는 26일까지 기획 상설전 ‘생명의 순환’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유미술관 설립자인 국중효 작가가 2000년 초반부터 ‘생명의 순환’이라는 주제로 일관성 있게 그려온 회화 작품 14점을 선보인다.

전시작들은 고유의 서정성을 바탕으로 생명의 역동성을 담아내고 있다.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생명력을 표현한 작가만의 독자적인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국중효 작가는 목포대 생활예술체육대학 학장, 오지호미술상 심사위원, 이인성 미술상 심사위원, 한국미술대전 서양화 심사위원, 전남문화재단 이사, 전남도 문화상 심사위원, 광주시 미술대전 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생명의 순환’

개인전 15회, 단체전 300여회에 참여했으며 전매대상전 대상, 전남도문화상, 대한민국육군조훈장을 수상했다. 현재 국유미술관장,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이사, 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위원장, 목포대 명예교수로 활동 중이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관람 가능하다. 월요일 휴관.

/최명진 기자

거북선에 담긴 과학 이야기

국립광주과학관, 11-19일 ‘여수’ 주제 프로그램 운영

국립광주과학관과 국립광주박물관이 여름방학을 맞이해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2022 여름방학 과학관과 박물관 이야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단위를 대상으로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진행하며, 참가자는 원하는 요일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공동기획 교육 프로그램 ‘과학관과 박물관 이야기’는 양 기관의 특색을 살려 주제에 대한 역사와 과학원리를 한 자리에서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인기몰이 중이다.

올 여름방학 특별교육은 ‘여수’를 주제로 한다.

여수를 대표하는 전통과학기술의 집합체인 거북선에 담긴 과학원리를 알아보고 순수 거북선 모형을 만들어보는 체험활동으로 구성됐다.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은 오는 15일까지 운영되는 ‘여수-그 시절의 바다’ 특별전시와 연계해 관련 문화재 탐구와 신석기시대 동물 미니 오토마타 제작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교육 신청은 국립광주과학관 통합예약 시스템을 통해 오는 10일까지 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농협 생산물매상 1억원 가입

남자들은 다 아는 바로 그 제품

New 씨알-렉스

남자한테~ 표현하기가~
어제와 다른 오늘의 활력을 느껴보세요!
나를 위한 좋은 습관, 씨알-렉스

드신 분은 말씀하십시오 역시! 씨알-렉스!!
효능·효과는 묻지마세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행사기간
2022년 3월 ~ 2022년 5월 30일

2개월분(60포) : 198,000원 148,000원

(주) 보람약품

주 문: yuhanbio@naver.com 네이버 카페 **씨알렉스** 검색

택배비: 농협 351-1107-2991-93 (예금주:유나은)

시·군 대리점모집

광주 본사 : 010-4624-5046
전북지사 : 010-7704-2490